

이준석 돌풍에...민주 대선 경선 연기론 불씨 살아나나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 발족...경선 일정·룰 확정할 듯 일부 의원 "대면 집회 가능한 시점으로 경선 늦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순께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선 180일 전 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당헌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일찍 선출해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시키지 말자는 논의지만 후보자 간 유불리가 커 각 진영의 찬반 논쟁도 뜨겁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이 이달 중순 발족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대 결과를 보

고 나서 여러 판단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30대 원외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 위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세대교체나 정치권 변화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맞물려 일부 의원들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경선을 늦춰야 한다고 공개 요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재선의원은 "대선기획단을 이달 중순에 만들면 언제 기

해서 경선 흥행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철저한 계획 없이는 하나 하나 예비경선, 본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3선 의원은 "중진이나 소장파 사이에서 경선연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대선기획단 구성을 전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는 것과 맞물려 대면 집회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경선을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재선의원은 "7~8월에 경선을 진행하면 무조건 '마스크 경선'으로 진행된다"며 "9~10월에 마스크 없는 오프라인 집회 가능성이 있다면 경선을 늦춰서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역동적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가 경선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통일장관 등 86그룹 주자들도 경선이 연기된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초 대선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경쟁을 펼칠 야당의 역동적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하다"며 "우리 후보는 그때까지 넉달간 마스크 쓰고 온라인에서 뭘 어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연기에 부정적이다.

당 관계자는 "폭넓은 합의가 없으면 일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준석 돌풍도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했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선연기론이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기획단이 경선 일정을 현행 당헌대로 확정하더라도 후보 등록이나 예비경선(컷오프) 일정은 미세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선 6개월 전 후보 선출' 일정을 역산해 이달 21일께 후보 등록, 23일께 컷오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기에서 일주일 안팎 순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도와 드려요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3일 광주 북구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상담과 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북구청 제공>

이준석 '굳히기' 나경원·주호영 '추격전'...TK서 총력전

대구서 당권 주자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이 3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 당심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TK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지역·당협별 민생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라디오 인터뷰로 TK 맞춤형 공약을 홍보했다. '집토끼 표심잡기'에 올인한 모양새다.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30%가량을 차지하는 TK 지역은 특히 투표 참여도가 높은 책임당원 비중이 커서 전당대회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통한다. 예비경선 1위의 이준석 후보는 굳히기에, 2위 나경원 후보는 뒤집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의 우위를 자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TK 지역의 민심과 당심에서 상당히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결국 TK가 보수개혁의 대열에 올라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 직후부터 대구에 머무르며 텃밭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TK 등의) 당원들은 (자기 당대표의)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계신다"며, 특히 "전장의 정수는 많은 경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정권심판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오전 경북 구미에 들러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참배한 뒤 대구로 이동했다. 주호영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영남권 판세에 대해 "(현지 분위기가) 제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열정이 식고 냉정을 찾으니, 당원들이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일한 TK 주자로서 지역 표심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다. 조정래 홍문표 후보도 TK 당심이 승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표결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소외계층 통신 보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3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형석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추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3일 "주주 '이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년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원이, 지방의료원 국가 지원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

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있다. 이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상가매매 (상무/치구)	신축원룸 (매매)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p>★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 없음, 임차인 한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p>010-4667-9820</p>